

평화이란 무엇인가?

이동기

1. 평화사의 전제: ‘평화의 발명’

“영구 평화란 꿈이다. 게다가 결코 근사하지도 못한 꿈이다. 전쟁이야말로 신이 부여한 세계질서의 지절(肢節)이다. 인간의 가장 고귀한 덕목인 용기와 체념, 책임감과 헌신적 희생정신 등은 전쟁 속에서 발현된다. 전쟁이 없다면 세계는 물질주의로 퇴락한다.”¹ 19세기 후반 프로이센과 독일제국의 군 참모총장이었던 헬무트 폰 몰트케(Helmuth Karl Bernhard von Moltke, 1800~1891)는 덴마크, 오스트리아, 프랑스와의 전쟁을 연승으로 이끈 뒤 전쟁을 역사의 동력이자 세계의 구원 매개로 끌어올렸다. 위의 언명은 그 전 한 세기 동안 유럽과 북미에서 진행되었던 ‘평화의 발명’을 직접 겨누는 것이었다.

18세기 후반 토마스 페인(Thomas Paine, 1737~1809)과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와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같은 일부 계몽사상가들은 전쟁에 대한 규범적 비판과 문명사회의 가치로서 ‘평화의 발명’에 뛰어 들었다.² 그들은 전쟁이 인도성에 반하는 일이라며, 각기 민주주의, 인민주권, 공화제 등에 기초한 국가연합이나 국제연맹이야말로 전쟁을 방지하며 이성적 평화 질서를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화가 더 이상 군주나 제후 또는 황제나 주교들의 ‘성스럽고 위엄을 갖춘 일’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나 이익’으로 간주되면서 비로소 근대적 의미의 규범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³

그렇지만 ‘평화의 발명’시는 단선이 아니었고, 직선은 더더욱 아니었다. 근대적 의미의 평화 지향과 규범에 모든 계몽사상가들이 동의했던 것도 아니고, 프랑스혁명기 일부 혁명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평화 지향을 갖는다고 해서 인민 해방과 혁명 확산을 위한 전쟁을 거부할 이유는 없었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인권과 시민권을 주창한 혁명가들은 ‘자유의 십자군’을 자처했기에 ‘혁명의 정신으로 전쟁은 부활했으며’,⁴ 뒤이은 나폴레옹 전쟁은 복고 지향의 반혁명 또는 민족 ‘해방을 위한 전쟁’ 의지와 열광에 불을 붙였다.

그런데 다른 한편, 1792년에서 1815년까지의 혁명전쟁과 나폴레옹 전쟁, 즉 유럽 ‘세계대전’은 다양한 행위 주체들로 하여금 ‘평화의 발명’을 이어가도록 자극하기도 했다. 독일에서는 문필가 요셉 괴레스(Joseph Göress, 1776~1848)가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구분한 뒤 전제정을 극복한 민주주의적 유럽 국가들 사이의 평화 협정을 통해 ‘적극적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는 평화 구상을 제시했다. 또 초기에는 프랑스혁명에 열광했다가 곧 보수적 관료로 돌아섰던 독일/오스트리아의 언론인 프리드리히 폰 겐츠(Friedrich von Gentz, 1764~1832)는 「영구 평화에 대해」라는 글에서 칸트의 구상과 대결했다. 그는 잠재적 열광에 대항할 ‘민족들의 동맹’에 의거해 이루

어지는 ‘정치적 균형’의 ‘상대적 평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⁵ 그 후 쾨츠가 오스트리아 재상 메테르니히(Klemens Wenzel Lothar von Metternich, 1773~1859)에 의해 자문관으로 임명되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평화 문제는 당대 지배 엘리트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받으며 정치 규범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야말로 체제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다. 1814/15년 비인회의에 모인 유럽의 군주들과 외교관들은 평화 유지와 평화 질서의 회복을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삼으면서 평화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훈련했다.⁶ 물론 전쟁 비판과 평화 갈망이 기성 정치체제나 사회 질서 비판과 연결되느냐 아니냐는 당시에 이미 평화 구상들의 다양한 차이에 깔린 핵심 문제였다.

특이하고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당시 영국과 미국에서 최초의 근대적 평화운동 단체들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1790년대 초에 이미 영국에서 프랑스혁명에 개입하는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의 친구들’이라는 모임이 만들어졌고, 이는 1816년에 ‘영구적이고 보편적인 평화 진흥 영국협회’라는 공식적인 조직으로 발돋움했다. 1815년 미국 뉴욕에서도 최초의 평화운동 조직이 태어났는데, 1820년에는 유사한 조직이 30여 개에 달했다. 웨이커 교도들과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 활동들에 앞장섰는데, 그 이유는 전쟁이 기독교 정신과 조응하지 않으며 인류의 이익에 어긋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⁷

그러나 19세기 초까지 ‘평화의 발명’은 여러 의미에서 아직 제한적이였다. 19세기 내내 전쟁은 매 시기 항상 ‘부활’하며 고유의 역동성을 발휘했다. 전쟁과 군의 숭고성에 대한 찬양도 줄을 이었다. 19세기 국민국가의 탄생으로 국제관계의 무질서는 오히려 새로운 차원에 진입했으며, 사회경제적, 문화적/인종적 요인들과 제국 질서의 경쟁과 공격적 이데올로기들의 등장으로 전쟁의 원인은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규모는 더 확대되었다. 국민

국가의 민족주의 정치동원 또는 구원 이데올로기나 경제적 이익 추구하고 결합한 전쟁에 대중들이 군인으로 참여함으로써 전쟁은 더 익숙하게 수용되고 필연적인 것으로 환영 받았다. 결국 전쟁 연구가들의 일치된 분석대로, ‘전쟁은 자연적이며 평화는 인위적’이기에⁸ ‘평화의 발명’을 위해서는 더 많은 별도의 문화적 고투가 필요했다.

결국 20세기 전반기 문명과괴적 ‘31년 전쟁’(에릭 홉스봄)과 폭력 경험으로, 19세기 후반 폰 몰트케 같은 인물들의 전쟁 갈망과 군인 찬양에 공감하는 이들이 비로소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조직화된 평화운동과 국제 평화 정치는 자신의 형식과 내용을 찾아가기 시작했으며, 평화 사유와 전망들은 다양한 지류를 개척했다.⁹ 그렇지만 사회운동과 정치 규범, 그리고 사상과 강령으로서 ‘평화의 발명’이 지속된 것과는 달리, 평화연구, 특히 역사학에서 평화연구의 ‘발명’은 한참 더뎠다. 인류 역사에서 참혹하지만 익숙한 전쟁이나 폭력과는 달리 평화는 그저 잠시 머물다 사라지거나 망연한 갈망에 그쳤기 때문이다. ‘역사 속의 평화’는—전통적인 평화이론의 관점에서 평화를 ‘전쟁부재(warlessness)’로 이해하든, 요한 갈통(Johan Galtung)과 디터 쟁하스(Dieter Senghaas) 등이 주도한 ‘비관적 평화연구’의 맥락에서 ‘평화부재(peacelessness)’의 총체적 극복으로 이해하든¹⁰—시공간적으로 항상 제한적이거나 눈앞에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 ‘어떤 선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인류 문명권에서는 전쟁과 폭력이 지배적인 역사적 현실이었고, 평화는 주로 이상적 갈망이거나 기껏 ‘전간기’ 또는 폭력의 일시적 휴지기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인간 삶의 과거를 다루는 역사연구와 서술이 평화를 주제 범주나 분석 대상으로 삼기는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전반기 정치 규범과 지향으로서 ‘평화의

발명'과 20세기 초반 조직화된 대중운동의 거점이자 국제정치의 핵심 의제로서의 '평화의 발명', 그리고 20세기 중반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평화에 대한 관심이 확장된 과정들은 모두 '평화사(Peace History)' 등장
의 핵심 전제이자 전사前史였다. 평화학 일반도 그렇지만 특히 역사학에서
평화연구는 전통적인 의미의 관점과 방법론의 발전이나 서술 대상의 새로
운 발견 못지않게 '평화의 발명'이 확장되는 정치적 문화적 과정의 일부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2. 평화사의 발전¹¹

전쟁과 국제 갈등은 이미 전통적인 역사서술과 근대 역사학의 인습적인
주제였다. 다만 20세기 전반기 두 차례 세계대전의 파국과 정치폭력으로
인한 '문명단절'(단 디너)을 경험한 뒤에는 '사회적 삶의 제도적 요소인 무장
권력의 역사'로서의 군사사(Military History)와 제노사이드 연구를 비롯한 다
양한 폭력사(History of Violence) 연구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역사학의 지평이
넓어졌다.

군사사는 정치 지도자들의 전쟁 결정과 수행에 매달리는 기존 전쟁사의
한계를 넘어 주로 무장권력의 조직적 담지자인 군 지도부와 폭력의 실제
수행자인 군인들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그것은 군을 전쟁 준비나
수행의 '제도'로만 다루지 않고 사회 구성 요소로 보며 군을 매개로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심성의 연관관계를 포괄한다.¹² 폭력사도 시대와 국면별 폭력
의 발현 조건의 차이와 원인 및 다양한 행위자들의 동기와 폭력 경험, 그리
고 폭력 기억과 영향 및 재현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¹³ '평화'는—그

것이 유토피아 사유나 미래학의 대상이 아니라면—전쟁사나 군사사 또는 폭력사의 일부쯤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사회사적 관점의 전쟁사와 전쟁 경험사와 문화사, 그리고 무엇보다 군사사와 폭력사는 평화사를 가능케 한 중요한 요인이기도 했다. 최근 많은 평화학자들이 강조하듯이, 평화를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최종 상태 또는 폭력과 갈등이 사라진 일종의 니르바나(Nirvana)로 이해하지 않고 전쟁과 폭력의 다양한 조건과 원인을 제거하는 갈등의 이성적 조정과 문명적 해결 과정으로 이해한다면,¹⁴ 군사사와 폭력사의 연구성과는 평화사로 이월되며 새로운 연구지평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긴 하지만 전쟁사나 군사사 또는 폭력사가 아닌, 평화를 역사학의 중심 주제로 내세우는 새로운 분과의 등장은 앞의 것과는 좀 다른 역사적 배경과 학문적 맥락을 필요로 했다. ‘평화사’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이미 1930년대 초였다. 1914~1918년 ‘대전쟁(Great War)’의 충격과 불안한 국제 질서의 현실에 직면해 소수의 서양 역사가들은 평화사상과 운동을 역사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¹⁵ 이를테면 영국 역사가 빌즈(A. C. F. Beals)는 1931년 저작을 통해 ‘평화의 역사(History of Peace)’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며 19세기의 평화사상과 반전운동가 및 조직들을 분석했다.¹⁶ 그러나 평화사의 선구자들은 자신들의 지적 작업이 역사학의 새로운 분과나 평화학의 한 조류라고 인식하지 않았으며, 체계적이고 집단적인 학문적 활동을 목표로 삼지도 않았다.

우선, 평화사 발전의 배경은 20세기 후반 새로운 전쟁(위협)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파고 및 그것에 조응한 평화운동과 대중적 평화 관심의 고조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 유럽의 일부 역사가들이 평화사를 주창한 배경은, 냉전시대의 핵무장 대결이 만든 인류생존의 위기와 공포였다. 냉전적

진영 대결과 핵무장 경쟁이 파국적 핵전쟁 발발 위협의 시대를 만들었기에, 앞선 때와 같이 전쟁을 그저 ‘정치의 연장이고 수단’으로 간주하기가 불가능해졌다. 핵전쟁 위협 시대에는 평화가 인류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선구적 평화사가들이 회고했듯이, “위기의 시기 역사가들”은¹⁷ 인류생존과 문명 존속을 위한 학문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자각했다. “인류의 생존 유지가 평화연구의 원래 목적”이었듯이, 평화사 또한 그 목적을 공유하며 등장했던 것이다.

평화사 발전의 학문 내적 배경으로는 두 가지 요인을 언급할 수 있다. 먼저, 미국과 유럽에서 1960년대 중반부터 평화학, 특히 ‘비판적 평화연구’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생겨났던 새로운 학문적 관점과 관심이다. 정치학과 사회학 등에서 발원한 ‘비판적 평화연구’는 전쟁과 갈등의 사회적 근원과 구조적 조건을 연구의 핵심 주제로 삼았다. 그런데 사회적 근원과 구조적 조건이란 대개 역사적으로 (재)형성되고 연속(또는 단절)되며 새로운 조건 속에서 변이를 만들고 영향을 지속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비판적 평화연구’의 발전은 역사적 접근을 자극하며 그것을 필요로 했고, 역사학적 평화연구는 기왕의 ‘비판적 평화연구’를 보조하며 그 인식 지평과 연구 관점을 확장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 역사학 내에서 전통적인 정치사의 극복과 전체사회사(History of Society, Gesellschaftsgeschichte)의 발전이 전쟁과 폭력에 대한 다층적 분석과 복합적 논의로 이어졌다. 전쟁과 갈등을 권력국가나 ‘외정우위’의 범주에서 다루던 역사주의적 정치사나 외교사에 대항해, 사회사가들은 구조와 관계 및 과정을 내세워 전쟁과 평화의 문제가 사회와 경제, 문화와 연관됨을 드러냈던 것이다. 그와 같은 사회사의 양적 팽창과 질적 발전의 과정 속에서 평화사가 발원했다.

‘위기의 시기’에 평화사가들의 의식적 결집과 집단적 노력에서 앞서 나갔던 곳은 미국이다. 1963년 12월 미국역사협회(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의 학술회의 중 일부 역사가들은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모임을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듬해 위스콘신대학교 역사학 교수 메를 커티(Merle Curti)와 존 홉킨스대학교 역사학 교수 찰스 바커(Charles Barker)를 중심으로 50여 명의 역사가들이 ‘역사학 평화연구회의(Conference on Peace Research in History)’를 조직해 미국역사협회의 연차 학술회의 내에서 독자 발표회를 유지하며 평화사를 발전시켜왔다. 당시 베트남전쟁에 대항하는 반전운동과 민권운동 등의 학문 외적 열기는 그들에게 역사가로서의 비판적 책무와 능동적 역할을 환기시켰다. 곧 미국의 평화사가들은 역사 속의 평화운동과 사상의 다양한 흐름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했다. 30주년이 되던 1994년 그들은 ‘평화사학회(Peace History Society)’로 모임 이름을 바꿨고, 매년 평화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그에 앞서 1972년부터 그들은 학술지 『평화와 변화(Peace & Change: A Journal of Peace Research)』를 발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유럽에서도 평화사에 대한 관심은 미국과 마찬가지로의 문제의식에서 등장했다. 1960년대 초 냉전의 위기와 핵전쟁 위협을 경험하면서 유럽의 평화학자들은 이미 ‘비판적 평화연구’의 선봉에 나섰다. 특히 독일의 경우, 빌리브란트 총리를 중심으로 한 시민당-자민당 연정은 1969년 집권하자마자 평화연구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규모를 크게 늘렸다. 1970년대 평화연구의 붐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역사학자들이 1977년 브레멘대학의 역사학자 칼 홀(Karl Holl)을 중심으로 ‘연구단’을 조직해 평화사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 모임을 토대로 1984년 40여 명의 독일과 유럽 평화사가들은 ‘역사학적 평화연구 연구회(Arbeitskreis Historische Friedensforschung)’를 결성했다. 1980년대 초반 독일과 유럽의 역사가들이 평화사로 결집하도록

이런 중요한 배경은, 무엇보다 나토 핵재무장 결의로 빚어진 ‘제2차 냉전’과 그에 맞선 평화운동의 고양이었다. 벤야민 지만(Benjamin Ziemann)과 볼프람 베테(Wolfram Wette), 요스트 뢰퍼(Jost Dülffer) 등의 주도로 회원 수는 급격히 증대했고, 그 후 매년 열리는 학술회의 성과물은 『역사학적 평화연구 연보(Jahrbuch für Historische Friedensforschung)』와 『평화와 전쟁』 연구 시리즈로 출간되었다.

미국과 독일 외에도 2009년에는 영국의 셰필드대학교 사학과에 ‘평화사 센터(Center for Peace History)’가 개설되어 새로운 거점이 되었다.¹⁸ 호주에서도 유럽과 미국의 연구에 자극받아 평화사 연구가 개척된 지 오래다.¹⁹ 1차 세계대전 발발 100주년을 맞이한 2014년 평화사가들이 준비한 1차 대전에 대한 학술 발표회가 유럽과 미국에서 줄을 잇고 있다. 이렇게 평화사는 역사학의 분과로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학의 한 연구조류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 유럽과 북미의 여러 평화학연구소에서는 사회과학자들뿐 아니라 평화사가들이 함께 학제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화학의 연구동향 보고에 평화사가 한 자락을 차지하는 것도 이제 드문 일이 아니다.²⁰

3. 평화사의 정의와 주제

1) 평화사의 개념 정의

유럽과 북미의 평화사가들은 유사한 정치적 배경과 학문적 성취에서 출발했기에 평화사의 개념적 정의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유의할 것은 영어권에서는 잘 정착된 ‘평화사’라는 용어가 독일어권에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독일에서도 평화사(Geschichte des Friedens)라는 용어가 사

용되고 있지만, ‘역사학적 평화연구(Historische Friedensforschung)’라는 용어가 여전히 확고하다. 물론 둘은 사실상 같은 개념적 내용을 지시한다.

한편, 평화사의 개념적 정의를 더 면밀히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평화와 사회정의를 위한 비폭력적 노력에 대한 역사학적 연구”나²¹ “전쟁과 국제갈등의 방지나 평화 증진과 관련된 이념과 개인 및 조직들에 대한 연구”라는²² 규정은 다소 좁은 의미의 정의다. 평화사상과 운동 및 평화정치에만 주로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세계평화의 달성과 연구에 대한 역사학적 방법의 적용”은²³ 좀 모호하긴 하지만 더 넓은 의미다. 평화 달성이란 반드시 운동이나 사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두 개념 규정의 간격은 평화사의 발전을 반영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평화사’는 애초 평화운동이나 분쟁 해결과 전쟁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한 역사학적 연구로부터 시작했지만 곧 평화와 관련된 더 다양한 주제 영역들을 포괄했기 때문이다. 즉, 평화사는 애초 연구 관심의 출발이었던 평화운동과 사상을 넘어 ‘평화 관련성’이라는 매개 개념을 통해 전쟁사나 군사사 및 폭력사 연구의 주요 주제와 대상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테면, 독일의 대표적 평화사가인 벤야민 지만은 평화사를 “평화라는 핵심 용어에 대한 규범적 지향과 근대사회의 평화능력에 대한 역사학적 관점의 분석적 질문을 연구작업의 핵심 추진력이자 척도로 삼는 역사학 분과”라고 규정했다. 평화사를 평화의 규범적 지향에 의거해 수행되는 ‘근대사회의 평화능력에 대한 역사학적 관점의 연구’로 이해하면, 그것은 단순히 평화운동이나 평화 달성 노력의 차원을 넘어 한 사회를 평화 촉진과 폭력 유발 억제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다루는 것을 가능케 한다. 지만의 동료 평화사가 베테는 다음과 같이 개념을 정리했다.

역사학적 평화연구는 평화와 관련된 역사적 대상들을 역사학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역사학의 분과다. 그것은 역사적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과거의 특수한 영역들을 해명한다. 역사학의 다른 분과들은 자신들이 역사의 어떤 분야를 연구대상으로 선별하는지를 어렵지 않게 드러낸다. 문화사, 제정사, 경제사, 사회사, 군사사, 종교사, 그리고 사상사와 정치사를 생각해보라. 그에 반해 역사학적 평화연구의 대상을 단순히 “역사 속의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

평화와 관련된 대상이란 말을 우리는 평화사상, 평화기획, 국가의 평화행위 또는 국가와 무관한 평화행위, 평화협정과 평화상황들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다. 평화를 방해하거나 침해한 역사적 힘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해당된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것은 폭력의 원인과 조건, 전제 및 결과를 포함한 폭력의 다양한 역사적 현상들이다. 이때 폭력 형식으로서의 전쟁이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은 당연하다.²⁴

게다가 평화와 관련한 역사학적 관심영역은 국제질서와 인간 삶의 다양한 조건의 변화에 따라 계속 변한다. 베테는 ‘평화 관련성’이 한 번에 확정되는 게 아니고 항상 세계 현실과 사회와 관계를 맺으면서 새롭게 논증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테면, 기후 변화나 생태적 조건의 변화로 최근 자원 분배를 둘러싸고 지구 곳곳에서 갈등과 폭력이 발화되었다. 이 새로운 평화 부재의 현실은 평화가 자연환경과 생태환경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됨을 계고했다. 그렇기에 평화사의 개념도, 연구주제나 대상도 계속 그 경계가 개방적이거나 유동적이며 확장적일 수 있다. 평화사의 개념은 특정한 이론이나 고정된 학문적 입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반영한 실제 연구작업과 참신한 연구관점과 축적된 연구성과를 통해 새롭게

게 정의내릴 수 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평화능력’, ‘평화의 조건’과 ‘평화 관련성’의 의미를 더 명료히 밝혀 나갈 수 있다.

2) 평화사의 연구대상과 주제

평화사의 개념 정의를 통해 이미 평화사의 연구대상과 주제들은 대강의 방향을 드러냈다. ‘평화’와 ‘전쟁’이 그것이며 그 매개가 바로 ‘폭력’인데, 이를 독일의 평화사가들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집단폭력의 억제와 축소로서의 평화, 그리고 집단폭력의 조직화된 적용으로서의 전쟁은 역사학적 평화연구 작업이 놓여 있는 양극이다. 역사학적 평화연구의 작업은 여타 학문들의 착상을 방법론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수용하고자 한다. 그것은 특히 사회사와 정치사와 문화사의 문제제기들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 평화운동, 평화 노력과 평화 과정들은 군사사와 전투적 폭력 사용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역사학적 평화연구 작업의 주제 영역에 속한다. 아울러 폭력 없는 근대로의 진보관에 대한 사상사적 학문사적 성찰도 그 주제 영역의 일부다.²⁵

요컨대, 평화사는 한편으로 (근대)사회와 인간집단의 평화 달성과 진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 역사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것을 통해 대안적 평화 사유의 현재적 함의를 끌어 올리는 작업이다. 다른 한편 평화사는 파국적 갈등이나 파괴적 전쟁을 초래한 역사적 복합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성향들을 해명하는 데도 집중한다. 그것은 ‘역사 속의 평화’를 연구하고 서술하는 과정에서 평화 형성을 교란하고 침해하는 과정들도 맥락 속에서 함께 드러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결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한 평화’, 즉 평화부재의 역사적 과정과 발전 동인들을 보여주는 것은 ‘역사 속 평화’의 장기적 의미와

평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목중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요체가 되는 평화사의 핵심 연구 주제는 우선 다음 네 가지다.²⁶

첫째, 평화사는 ‘역사 속의 평화’, 즉 전쟁 종결과 폭력적 갈등의 중재를 위한 평화협상, 평화사상과 평화론 및 평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특히 평화운동과 정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이때 근대 이전의 평화 사유와 정치는 근대적 형식과 내용을 갖지 않았음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근대 특정 제국의 위계적 질서 유지가 상대적 안정과 갈등 조정을 이루어냈다면 그것만으로도 평화사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관심의 대상이다. 또 정의롭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정치 사회 현실의 존속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폭력의 중단과 적대적 갈등의 조정으로 상대적 평온이 깃들었다면 평화사는 그 요인과 맥락을 찾을 필요가 있다.²⁷

물론 18세기 후반 근대적 ‘평화의 발명’ 이후라면 평화 지향 단체들과 평화운동들에 대한 기억화 작업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19세기와 20세기의 평화 노력에 대한 기억화 작업은 평화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체성과 지향 및 전망의 창출 과제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²⁸ 평화사는 이미 오랫동안 반전운동과 이념, 평화주의 담론과 사상 및 평화정치 등에 대해 연구를 축적해왔다. 평화사가들은 과거의 억압되고 망각된 평화 노력들을 복원해 현재의 평화 지향에 연결시켜 미래를 위한 평화의 빛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특히 20세기 초부터 최근까지 지구 곳곳에서 전개된 다양한 반전 평화사상과 운동 및 평화체제 형성과 폭력극복과 화해지향의 노력들은 더 분석되고 논의되어야 마땅하다.²⁹ 평화사의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더 많은 ‘평화의 과거들’을 캐내야 하고 그와 같은 평화 노력의 역사적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³⁰ 그러나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역사적으로 구현되지 못한 그 ‘거부된 평화’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맥락을 이탈해 정당화

하거나 당파 정치에 몰들거나 이데올로기적 목적으로 이상화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평화사는 평화 부재의 주요 요인들에 역사적으로 접근해 그 성격과 특징을 해명한다. 이때 평화사의 기본 전제는, 전쟁과 폭력 및 적대적 갈등의 현실적 발전과 현재적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의 역사적 형성과 변화, 단절과 변이의 과정과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현재의 비평화적 현실이 항상 과거로부터의 단순한 축적이거나 순연한 상승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역사의 각 시기와 국면에서—국제적으로나 사회 내적으로나—특수하게 형성된 평화 부재의 조건과 요소를 맥락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그렇게 하려면 전쟁과 폭력의 구조적 조건과 원인에 대한 연구를 넘어 ‘과정’과 ‘현상’을 중심으로 역동적 발전과 복합적 양상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나 체제, 이데올로기나 심성을 전체사회의 관점에서 살피되 그것을 환원적으로 다루거나 추상화시키지 않고 역사적 생성 과정을 포착하는 방법론이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평화 부재 요소들 내지 과정들의 연속과 비연속 문제다. 특히 ‘과정’과 ‘현상’에 주목해 폭력을 연구하면 ‘역사의 행위자’인 구체적 인간들과 그들의 사회적 실천이 더 부각되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 역사 행위자들의 능동성과 주체성, 즉 고유한 인지와 해석 및 자기화와 실천의 의미를 부각하는 일상사나 경험사의 연구방법론과 이론들이 특별히 주목될 필요가 있다.

셋째, 평화사의 주요 주제는 군사사와 폭력사의 연구성과인 군사주의 문제를 포괄한다. 군사주의 문제를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한 평화사가는 베테이다.³¹ 군사주의는 일반적으로 정치와 사회에서 군의 지배가 관철되거나 호전적인 군사적 가치관이 정치와 사회와 문화를 지배하는 현상을 뜻한다.

그런데 베테는 군사주의에 그와 같은 현상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군사주의를 특정 현상을 넘어 ‘복합적인 체제 개념’으로 이해한다. 베테가 이해하는 군사주의는 국가와 사회체제의 특정한 성격을 포괄하는 개념이기에 다양한 현상들을 아우른다. 정치, 학문, 경제 등에 대한 군의 영향, 폭력 숭배, 전쟁 이데올로기, 군사교육, 적과 아의 이분법적 사고, 민족주의와 인종주의 이데올로기, 군수산업의 이익 관철, 엄격한 상명하복의 규율문화와 호전적 심성 등은 모두 군사주의의 복합적 체제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평화를 교란하고 평화문화를 파괴해 국가를 전쟁으로 이끌고 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손쉽게 전쟁문화를 수용하게 만드는 것을 군사주의로 착목했기 때문이다. 논리적 귀결에 따르면, 그와 같은 군사주의를 극복하는 데서 평화의 조건과 가능성이 열린다고 볼 수 있다. 평화사가들은 군과 사회의 관계를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면서,³² 사회계층이나 시기별 군사주의의 다양한 변이와 발전사 또는 그것의 극복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때 특히 군 엘리트의 역할뿐 아니라 일반 군인들의 전쟁과 폭력 경험, 기억 및 전승과 재현도 중요하다. 한국사의 연구 맥락에서 군사주의라는 주제가 얼마나 유용한지는 의문이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화 파괴와 교란의 근원적인 사회적 힘을 찾아내는 역사적 접근의 함의다.

마지막으로 냉전기 평화의 문제다. 국제 냉전기(1945/47~1990) 평화의 주제는 최근 ‘냉전사(Cold War History)’ 연구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냉전사의 관점에서 평화를 주제로 다루는 경우, 국제 또는 지역 냉전이 완화되거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정과 화해가 이루어진 정치국면 내지 ‘상태’, 즉 데탕트가 중심에 놓인다.³³ 그게 아니면 냉전의 (재)형성과 (재)강화를 방해했거나 지체시켰던 일부 평화정치가들을 언급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냉전 속 평화’의 역사상을 포괄적으로 보여

주기에는 너무 부족하거나 그저 에두른다.

냉전기 평화사의 주제를 데탕트로 국한하는 것은 다양하고 끈질기게 전개되었던 반냉전과 탈냉전 평화 지향과 노력들을 국제정치무대의 일부 협상의 성과와 협약의 화려함으로 가리는 꼴이 된다. 아울러 ‘승자의 역사’에 취해 평화 지향과 노력들을 비현실적인 망상적 주장쯤으로 간주하거나, 정 반대로 그것들을 ‘잃어버린’ 평화의 기회로 이상화하는 것도 평화사의 관점에서 보면 크게 유익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냉전기 다양한 평화 지향 주체들의 다채롭고 담대한 구상과 전략을 냉전의 회고적 발전사에 함몰시키지 않고 독자적인 흐름과 역동적 지평을 갖는 것으로 주제화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냉전기 평화사는 냉전을 거부하고 극복하고자 했던 사상과 담론, 강령과 실천, 심성과 문화의 여러 차원들을 복합적으로 살펴 ‘평화 조건과 능력’을 더 찾아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4. 맺는말: 평화에게 역사를 주자!

국가라는 배들은 너무 오랫동안 폭풍의 파고에 시달렸다. 그렇기에 평화로운 항구의 가장 광범위한 특징조차 정치가들의 상상력에는 포착되지 못한다. 평화로운 항구의 특징은 무엇일까? 원하기만 한다면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특징들은 충분히 식별될 수 있을까? 다른 비유를 든다면, 평화의 기술자들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구조를 건설해야 할까?³⁴

유엔 창설을 학문적으로 보조하고 지문했던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켄시 라이트는 1942년 『전쟁연구』를 통해 평화란 무엇보다 다양한 인간집단과

공동체의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창안 내지 발명의 결과임을 강조했다. 라이트가 보기에, 의식적인 ‘평화의 발명’ 중 가장 중요한 작업은 ‘전쟁을 분석하고 평화를 연구’하는 일이었다. 평화에 대한 역사학적 연구 또한 그 ‘평화의 발명’에 속하는 중요한 문화적 과업이다. ‘폭풍의 파고에 시달’리는 이 ‘위기의 시기’에 역사가들 또한 ‘평화로운 항구의 특징’을 알아내는 학문적 보조자로 나서지 않을 수 없다.

평화사는 연구 주제의 범주가 전쟁과 폭력과 평화라는 점에서 여타 ‘비역사학적’ 평화연구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그것의 효용과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고, 바로 그 차이를 통해 평화연구와 평화정치에 공헌한다. 먼저, 평화사는 ‘역사 속 평화’에 주목함으로써 ‘평화로운 항구’의 특징을 그리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과거의 다양한 평화사상과 운동이 현재와 미래의 평화 근거이자 자양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화사가 현재의 갈등 해결과 미래의 평화 형성에 직접적인 지침과 구체적인 교훈을 제공해줄 수는 없다. 평화사는 다만 ‘역사 속 평화’를 매개로 평화에 대한 정치적 상상을 자극하고 보조하며, 또 그것을 제한하고 견제하기도 한다. 평화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으로, 평화사는 역사의 복합적 맥락에 주목함으로써 ‘평화 부재’나 평화 형성의 조건과 요인들의 연속과 불연속, 즉 지속과 단절, 변이와 전환, 영향과 잠복 등을 중심 문제로 다룬다. 평화사는 ‘비역사학적’ 평화연구와는 달리 그 다양한 요인과 조건들의 구체성과 복합성 및 변화에 민감하다. 그리고 그것의 해명을 통해 평화의 조건과 원인 및 평화능력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평화사는 냉전과 분단 현실 분석이나 갈등과 폭력에 대한 정태적 구조 이해에 ‘역사의 걸옷을 입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아울러 평화시는 역사나 현재의 평화운동과 이념에 대한 무조건적 옹호자로 자기정체성을 제한할 필요도 없다. 평화시는 한편으로 단절되고 망각된 평화운동과 이념에 생명을 불어넣으면서도, 다른 한편 신화화와 과도한 이상화에도 저항해야 한다. 오히려 평화시는 폭력 발현과 평화 노력의 다양한 맥락들의 환기에 더 전향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평화 논의가 단선적인 인과론 또는 성급하고 표피적인 (당파)정치적 논거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결국 평화시는 폭력과 전쟁의 유인 또는 억제에 다양한 상승과 하강, 역류와 반전, 충돌과 역설까지도 살피 그것을 평화 형성을 위한 학문적 토론의 근거로 끌어올리는 작업이다. 그와 같은 역사적 접근의 관점이 결합된 평화 토론이 활발할 때에만 비로소 ‘평화에게 기회가’ 생길 것이다. 자, ‘평화에게 역사를 주자(Give peace a history)!’ 歴

이동기

현재 강릉원주대 사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양 현대사를 전공했고, 최근의 관심사는 독일 통일과 냉전사, 과거청산과 역사이론이다. 저서로는 *Option oder Illusion? Die Idee einer nationalen Konföderation im geteilten Deutschland 1949~1990*와 『20세기 평화텍스트 15선』이 있다. leedk@gwnu.ac.kr

주

- 01 Helmuth von Moltke, “Brief an Johann Caspar Bluntschli am 11. Dezember 1880”, *Gesammelte kleine Schriften, Band II*, Ernst Siegfried Mittler und Sohn, 1881, p. 271.
- 02 마이클 하워드 지음, 안두환 옮김, 『평화의 발명—전쟁과 국제질서에 대한 성찰』, 전통과 현대, 2000.
- 03 David Cortright, *Peace. A History of Movements and Idea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 26; Jost Dülffer and Gottfried Niedhart ed., *Frieden durch Demokratie? Genese, Wirkung und Kritik eines Deutungsmusters*, Klartext, 2011, pp. 9~10.
- 04 Johannes Kunisch and Herfried Münkler ed., *Die Wiedergeburt des Krieges aus dem Geist der Revolution. Studien zum bellizistischen Diskurs des ausgehenden 18. und beginnenden 19. Jahrhunderts*, Duncker & Humbolt, 1999.
- 05 괴레스와 겐츠의 평화 구상에 대해서는 Jost Dülffer, *Im Zeichen der Gewalt. Frieden und Krieg im 19. und 20. Jahrhundert*, Böhlau, 2003, pp. 8~14, 26~39를 참조하라.
- 06 Matthias Schulz, *Normen und Praxis. Das Europäische Konzert der Großmächte als Sicherheitsrat, 1815~1860*, Oldenbourg Wissenschaftsverlag, 2009.
- 07 영국과 미국의 초기 평화운동 단체들에 대해서는 David Cortright, *Peace. A History of Movements and Ideas*, pp. 26~32를 참조하라.
- 08 Quincy Wright, *A Study of Wa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7, p. 1332.
- 09 20세기 평화사의 대략적인 개요는 이동기, 『20세기 평화텍스트 15선』, 아카넷, 2013 참조.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평화 옹호자들의 다양한 조류에 대해서는 David Cortright, *Peace. A History of Movements and Ideas*, pp. 25~44; Antony Adolf, *Peace. A World History*, Polity Press, 2009 참조.
- 10 ‘전통적인’ 평화연구가 주로 안보 문제나 전쟁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비판적 평화연구’는 폭력과 전쟁의 구조적 원인과 현존 사회체제의 갈등 원인을 복합적으로 다루며 근본적인 체제 ‘비판’의 성격을 지녔다. Ulrike C. Wasmuht, *Geschichte der deutschen Friedensforschung. Entwicklung-Selbstverständnis-Politischer Kontext*, agenda Verlag, 1998, pp. 165~191.
- 11 이하 이 장의 서술은 2013년 5월 필자의 다른 글을 축약하고 보충해 재구성한 것이다. 이동기, 『데이지 꽃을 건네는 클리오, 평화사』, 서울대학교 평화인문학연구원, 『평화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아카넷, 2013, 53~76쪽. 더 상세한 내용과 문헌 주석은 이 글을 참조하라.
- 12 군사사에 대해서는 Rainer Wohlfeil, “Wehr-, Kriegs- oder Militärgeschichte?”, *Militär-geschichtliche Mitteilungen* 1, 1967, pp. 21~29; Jeremy Black, *Rethinking military history*, Routledge, 2004; Thomas Kühne and Benjamin Ziemann ed., *Was ist Militärgeschichte?*, Ferdinand Schöningh, 2000, pp. 9~46을 참조하라.
- 13 폭력의 역사적 연속성과 역동성에 주목해 폭력 발현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확산 및 영향에

대한 가장 의미 있는 연구는 Sönke Neitzel and Daniel Hohnsiedler ed., *Kriegsgewalt. Die Entgrenzung der Gewalt in kriegerischen Konflikten vom Mittelalter bis ins 20. Jahrhundert*, Ferdinand Schöningh Verlag, 2008; Alan Kramer, *Dynamic of Destruction. Culture and Mass Killing in the First World War*,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독일 함부르크 사회연구소에서는 역사가 외르크 바베로프스키(Jörg Baberowski), 베른트 그라이너(Bernd Greiner)와 미카엘 빌트(Michael Wildt)의 주도로 ‘20세기 폭력사 연구(Studien zur Gewaltgeschichte des 20. Jahrhunderts)’ 시리즈가 발간되고 있다. 한편, 전근대와 근대의 폭력 발현 양상과 원인의 차이에 주목한 폭력사 연구로는 Karl Heinz Metz, *Geschichte der Gewalt. Krieg, Revolution, Terror*, Primus Verlag, 2010.

- 14 Thorsten Bonacker, “Forschung für oder Forschung über den Frieden? Zum Selbstverständnis der Frieden- und Konfliktforschung”, Peter Schlotter and Simone Wisotzki ed., *Friedens- und Konfliktforschung*, Nomos 2010, pp. 56~60.
- 15 Peter van den Dungen and Lawrence S. Wittner, “Peace History: An Introduc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40(2003), 4, pp. 363~364.
- 16 A. C. F. Beals, *The History of Peace: A Short Account of the Organized Movement for International Peace*, G. Bell, 1931.
- 17 Berenice A. Carroll, “‘The Historian in a Time of Crisis’: A Memoir of Peace History”, *Peace & Change* 30(2005), 1, pp. 21~29.
- 18 홈페이지 <http://www.peacehistory.dept.shef.ac.uk/>를 참조하라.
- 19 Ralph Summy and Malcolm Saunders, “Why Peace History?”, *Peace & Change* 20(1995), 1, pp. 7~38.
- 20 Peter Schlotter and Simone Wisotzki ed., *Friedens- und Konfliktforschung*을 참조하라.
- 21 Charles F. Howlett, “American Peace History since the Vietnam War”, *Perspectives on History*, December 2010, p. 35.
- 22 Ralph Summy and Malcolm Saunders, “Why Peace History?”, *Peace & Change* 20(1995), p. 8.
- 23 Peter van den Dungen and Lawrence S. Wittner, “Peace History: An Introduc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40(2003), no. 4, p. 363.
- 24 Wolfram Wette, “Kann man aus der Geschichte lernen? Eine Bestandsaufnahme der historischen Friedensforschung”, ed Ulrike C. Wasmuth, *Friedensforschung. Eine Handlungsorientierung zwischen Politik und Wissenschaf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1, p. 90.
- 25 Jost Dülffer and Gottfried Niedhart ed., *Frieden durch Demokratie?* p. 7.
- 26 평화사의 주요 연구 주제 영역에 대한 논의는 Ralph Summy and Malcolm Saunders, “Why Peace History?”, pp. 12~25; Stefanie van de Kerkhof, “Historische Friedensforschung—eine Geschichte des Friedens”, Peter Schlotter and Simone Wisotzki ed., *Friedens- und*

Konfliktforschung, pp. 385~398; Benjamin Ziemann, “Perspektiven der Historischen Friedensforschung”, Benjamin Ziemann ed., *Perspektiven der Historische Friedensforschung*, Klartext Verlag, 2002, pp. 28~39.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 영역이 있지만 지면의 제약으로 이 글에서는 그 중 한국에서 평화사 연구가 가장 적극적으로 매달릴 필요가 있는 것 네 가지만을 언급하겠다.

- 27 그것과 관련된 가장 방대한 연구서는 Klaus Garber, Jutta Held, Ronald G. Asch, Wulf E. Voß and Martin Wrede ed., *Der Frieden-Rekonstruktion einer europäischen Vision*. 2 Bde., Fink, 2001.
- 28 Stefanie van de Kerkhof, “Historische Friedensforschung—eine Geschichte des Friedens”, Peter Schlotter and Simone Wisotzki ed., *Friedens-und Konfliktforschung*, p. 395.
- 29 대표적 연구는 Jost Dülffer, *Frieden stiften. Deeskalations-und Friedenspolitik im 20 Jahrhundert*, Böhlau, 2008.
- 30 Thomas Kater and Albert Kümmel, ed., *Der verweigerte Friede. Der Verlust der Friedensbildlichkeit in der Moderne*, Donat, 2003.
- 31 Benjamin Ziemann, “Perspektiven der Historischen Friedensforschung”, 31~34; Wolfram Wette, *Militarismus in Deutschland. Geschichte einer kriegerischen Kultur*, Fischer Taschenbuch Verlag, 2008.
- 32 Julika Bake, “Militär und Gesellschaft in Deutschland”, Peter Schlotter and Simone Wisotzki ed., *Friedens-und Konfliktforschung*, pp. 183~214.
- 33 Bernd Stöver, *Der Kalte Krieg 1947-1991. Geschichte eines radikalen Zeitalters*, C. H. Beck, 2007; Melvyn P. Leffler and Odd Arne Westad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 I~III*,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34 Quincy Wright, *A Study of Wa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7(초판은 1942), p. 1332.